

사찰 담장은 재료와 축조기법 제대로 따져야

담장(3)

담장에는 외부와의 경계선에 쌓은 외담과 정해진 공간 내부에 쌓은 내담이 있다. 외담은 경계를 표시하거나 외부로부터의 시각과 통행을 차단하여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기능성이 우선되며, 동시에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외부에서 볼 때 차별화된 공간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하기도 한다. 반면, 내부에 쌓는 내담의 경우에는 이질적 공간을 구분하여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축조하는데, 장식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능적 목적과는 상관없이 장식담을 쌓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외담은 내담에 비해 높이가 높고, 방어진 기능에 맞도록 담장의 구조가 튼튼하고, 두께도 두꺼운 편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생활공간에 내담을 쌓아 스님들이 장애 없이 수행을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신도 수가 많아지고, 관람을 목적으로 사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스님들의 수행과 생활이 방해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사찰경내에 쌓은 내담은 스님들의 일상에 있어서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최근 도시에서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나 지역의 거주민을 위해 담장을 떨어냄으로써 시각적으로 개방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담장 없애기 운동을 벌여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기관의 담장을 철거한 사례가 많다. 산지사찰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지만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러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부대중이 사찰을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찰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문화공간이나 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도시민들에게 있어서 사찰은 제한된 종

교공간이 아니라 언제든지 찾아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귀중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스님들과 신도들의 수행이나 생활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좋지 않은 사례

전통사찰의 담장은 그 사찰에 적층(積層)되어 형성된 전통성과의 조화가 가장 중요한 설치과제이다. 왜냐하면 경내의 건물이나 시설물 혹은 구조물과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진 담장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전통사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관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찰에서 담장을 새로 신축하거나 수리를 할 때에는 사찰의 오래된 경

수행환경 보호 기능 있지만

경관 조화 고려 재료·공법 선택

목재 펜스 대표적 실패 사례

화강석 판석 사용도 신중해야

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료나 축조 공법을 적절히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 만들어진 담장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역시 재료를 잘못 선택하여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해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대석 석단 위에 목재펜스를 설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사례에서 보이는 목재펜스는 새로운 디자인 효과를 주고 싶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특별한 시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목재펜스의 재질감이나 형태는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심대하다. 더구나 높이



장대석 석단 위에 목재 펜스를 설치한 경우는 잘못된 재료 선택으로 전통사찰의 경관성을 해치는 대표적 경우다.

가 높아지게 되면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담장도 문제가 된다. 벽돌담장은 궁궐이나 사대부가에 주로 축조한 것으로,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전통사찰에 벽돌담장을 쌓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문제는 이 벽돌담장이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울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사례에서 보이는 벽돌담장은 오래된 것은 아니고 새로 쌓은 것으로, 건물에 바짝 붙여서 설치하여 그 용도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다. 더구나 담장의 재료가 되는 벽돌의 색채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붉은색이고, 담장하부의 석재 기초부분도 허술하여 축조기법도 좋지 않다.

기존의 담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판석을 사용해 담장을 연결·설치한 경우도 있는데, 이것 역시 좋은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 화강석 판석을 사용하여 담장을 만든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통사찰에 도입한 이 담장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인 셈이다. 물론 전통사찰에 도입하는 담장의 재료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엉뚱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사찰의 경관적 정체성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한다.

재료의 도입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축조 기법까지 잘못된 경우도 많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 사괴석, 견치석, 장대석이 혼재된 담장이다. 이 담장은 수리과정에서 원래의 담장 디자인을 존중하지 않고 재료와 축조 기법을 선택함으로써 전혀 다른 형태의 담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담장의 경우 정돈되지 않은 혼재된 경관성을 보이게 돼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안정한 느낌을 주게 된다.

또 한 가지 사례는 사찰경역 외부 경계에 쌓은 사괴석 담장으로, 재료는 발파석을 사용했고, 축조방식은 시멘트줄눈을 넣어 전

통성과는 거리가 먼 담장을 만들었다. 더구나 마주보고 있는 담장과 축조방식을 달리 하여 한 공간에서도 통일된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담장 역시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담장은 아니지만 담장과 유사한 시각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바로 건물의 기단에 설치하는 난간이다. 우리 사찰에서는 오래전부터 석재 난간을 설치해왔는데, 석재 난간은 담장과는 또 다른 건축적 요소로 건물과 이루는 조화성이나 기단의 높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지혜로운 시설물이었다.

특히 석재 난간은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여 사찰마다 독특한 경관을 만들어 낼 수 있으므로 석재 난간의 현대적 계승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전통사찰에 설치된 철제 난간이나 알루미늄제 난간의 경우에는 사찰경관에 좋지 않은 부정적 작용을 하게 된다. 물론 이 난간들이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설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관적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특이한 사례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오

래된 산지사찰에 설치한 목재난간을 꼽을 수 있다. 이 목재난간 역시 사람들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나 주변의 오래된 건물이나 석단과는 어울리지 않는 디자인으로 특히 재료나 형태적 측면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건립되는 현대사찰의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경관성과는 다른 다양한 담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다. 이미 건축의 재료와 공법이 달라지면서 드러나는 경관성이 다른데 담장만 전통적인 디자인을 고수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통의 창조적 계승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 장흥에 새로 건립한 정려사의 담장 겸 난간은 중요한 시사점을 마련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이 담장 겸 난간은 철, 유리, 돌을 조합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 건물과 잘 조화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자연을 차경(借景)하는데 매우 적합한 디자인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다양한 재료와 축조기법이 혼재돼 불안정한 느낌을 주는 담장



기존의 담장과 어울리지 않는 화강석 판석을 사용해 담장을 연결한 경우

신묘장구대다라니 (산스크리트어)

상표등록 40-2011-0049176 / 디자인등록 30-2011-0038559
가격 : 31,000원
단체주문 환영

참선자, 수행자, 수험생, 학업자 소원 성취의 옷

침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향균효과가 가장 뛰어나 공기정화에 탁월합니다.

사람의 체온에 해당하는 36°도 이상의 열을 받을 때부터 그 기운을 발하기 시작하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몸 속에 나쁜 기를 내려주고 기의 순환을 원활히 해주고 사기(邪氣)를 몰아내어 머리를 맑게 해주어 한의학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부처님의 향으로 최고의 수행과 참선을 할 수 있는 중생제로 탁월한 하늘이 내려준 천연향이며 향기를 내는 신비한 물질이다.

삼각법(삼각기법)을 통하여 참선과 수행자의 중심이 되어 기가 가장 많이 모여지며 심신이 안정되어 소구하는 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신묘장구대다라니(산스크리트어)는 일체의 소망을 성취케하고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이며 일체중생이 윤회하는 삼유(三有)의 길을 청정케 하는 것이다.

색중에서 적색(빨강)과 흑색을 교합하여 흑색은 깨우침, 팔정도(정견, 정어, 정념, 정업, 정명, 정사유, 정정진, 정정)의 의미로 적색은 항상 쉬지 않고 수행이라는 정진을 상징합니다. 글자 하나 하나마다 금박과 침향이 무한한 기운으로 변하여 부처님의 자비로 일체 중생을 성취케하는 깨달음의 옷입니다.

모든 보시금은 대불전 불사에 쓰여집니다.

불자라면 가족 모두가 깨달음의 옷으로 소원성취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우 능 시 031)898-5698 / 010-2589-7280

우체국 104604-01-005265 [예금주: 우능사]

빨강색 (액운, 액살 소멸), 노랑색 (부를 상징)
줄업선물, 각종 선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당가격 : 23,000원 1SET : 45,000원
단체주문 환영